

 대한민국정부		보 도 자 료		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 대한민국 대정환 한국판뉴딜	
		배포 일시	2021. 10. 12.(화) 총 4매(본문 3, 참고 1)		
담당 부서	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허만옥, 사무관 양도형 • ☎ (044) 200-5710, 5725		
	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조용환, 사무관 양재원 • ☎ (044) 203-4020, 4022		
	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박지훈, 사무관 김상엽 • ☎ (044) 215-4570, 4572		
	중소기업벤처부 글로벌성장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강기성, 사무관 김혜인 • ☎ (044) 204-7501, 7504		
	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김배성, 사무관 광병철 • ☎ (044) 201-3993, 3998		
	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한 민, 사무관 조광선 • ☎ (042) 481-7810, 7811		
보 도 일 시		2021년 10월 1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월 12일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다각화 추진

- 선복 및 운임 지원과 더불어 현지 내륙운송 및 물류창고 지원
- 장기운송 계약 확대, 표준운송계약서 개선 등 상생형 생태계 조성

□ 정부는 10.12(화) 3차 「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(TF)」* 회의를 개최하고, 물류 글로벌 동향과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* (정부) 해수부 기초실장·산업부 무투실장(공동반장), 기재부, 중기부, 국토부, 관세청(유관기관) KOTRA, 무역보험공사, 중소기업진흥공단, 해양진흥공사, 무역협회, 해운협회, 국제물류협회

○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수출입물류 상황에 대응하여 북미항 선박 투입, 중소화주 전용 선박(船腹, 적재공간) 배정, 물류비 및 금융 지원 등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에 노력해 오고 있다.

* ▶(선박 추가투입, 선박배정 등) 미주항로 13.4만 TEU 수송하여('20.8~'21.8월) 전년 대비 증가한 물동량(20.1만 TEU)의 66.8% 해소, 중소화주에 미주·유럽항로 62회 1.2만 TEU 배정
▶(운임·금융 지원) 중소·중견기업 대상 263억원 물류비 지원, 1,500억원 금융 지원

□ 그러나 글로벌 물동량 증가, 미국·유럽 등 항만 하역·트럭기사 인력 부족 등으로 현지 항만과 내륙운송 적체*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고,

* (미국) LA·롱비치항만 인근에 선박 60여척 이상 하역대기(WSJ, 9.27) / (영국) 트럭기사 부족 및 물류대란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며, 유럽전역으로 물류난 확대 가능성(CNBC, 10.4)

○ 연쇄적으로 국내 물류 차질로 이어져 최근 국내·외 내륙 운송비, 창고 보관비 상승 등 수출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.

* 수출입물류 업계 간담회(9.9, 산업부·화주·물류사·선사), 「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」에 제기된 주요 애로사항은 각종 물류비, 현지 물류보관 창고, 내륙 운송 지원 요청 등이 多數

□ 이에 따라 물류 비상대응 TF는 해외물류거점 제공, 현지 내륙운송 지원, 화물기 운송 확대 등 다각적인 물류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○ 현지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위해 정부는 ①해외에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물류거점을 제공하고, ②해상운송과 현지물류(트럭 등)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.

* ①(해외물류센터) 10.29일 로테르담 센터 개소, 바르셀로나·자바 센터는 '22.上 개소 예정 (로테르담 센터: 3만㎡ 규모의 화물 보관장소 임차, 풀필먼트(Fulfillment) 서비스 제공 등)

②(복합운송) 우정사업본부·현지 물류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화주 현지 내륙운송 지원 (예: 해상운송(부산항→미국서부 롱비치항)과 내륙운송(롱비치항→뉴욕 등) 연계)

○ 미주노선 국적사의 화물기 운항을 대폭 증편*하여 정체된 해상운송의 대안으로 항공운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.

* '21년 총 9,000편 이상 수송('19년 4,291편 → '20년 7,598편 → '21.1~8월 7,606편)

○ 또한,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운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물류전문기업 활용에 따른 운임비용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

* 물류비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중('21.8.3,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)

□ 한편, 제도적으로는 수출입물류 생태계의 위기 대응력 강화, 선·화주 상생을 위한 물류시스템 구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.

- 장기운송계약 확대, 표준운송계약서 개선 및 활용률 제고 등을 신속히 추진해 해상운임 변동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고,
- 통합물류정보 플랫폼을 정비해 선박입출항, 가용 선복량 등에 대한 선·화주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해양수산부 전재우 해운물류국장은 “3분기 들어 미국 등 **주요항만의 적체가 심화**되고 있으며, 해외 해운전문기관들은 **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정상화 될 것으로 예측**하고 있다”며,

- “비상대응 전담반 관계기관들과 함께 **수출입물류 상황을 예의주시** 하면서,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**물류애로 해소**를 위해 **최선을 다**하겠다”고 밝혔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“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글로벌 **물류의 대내외적 불안정성**이 수출 환경에 지속적인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”며,

- “현재까지의 양호한 **수출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** 비상대응 전담반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**수출입물류 관련 리스크 관리에 최선**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참 고

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 3차회의 개최 계획

□ 개최 목적

- 수출입물류 그간의 정부지원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애로 장기화 전망*에 따른 추가 지원 방안 논의 (※1차회의 5.21, 2차회의 6.7)

* 세계 주요 항만의 적체 현상이 '22년 여름까지 지속될 전망(美 WSJ, '21.9.6)

□ 회의 개요

- 일시·장소 : 10.12(화) 16:00, 무역보험공사 6F 중회의실 (광화문역 인근)
- 참석 : (공동 반장) 산업부 무역투자실장, 해수부 해운물류국장(代)
 - (정부) 기재부, 중기부, 국토부, 관세청 담당 과장
 - (유관기관) 해양진흥공사, KOTRA, 무역보험공사, 중소기업진흥공단, 무역협회, 해운협회, 국제물류협회

□ 진행 계획(안)

시 간	세부 내용	비 고
14:00~14:05('05)	모두 말씀	산업부 무역투자실장 해수부 해운물류국장
14:05~15:25('8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수출입물류 글로벌 동향 및 전망 ▪ 정부대책 이행 현황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	해양진흥공사 관계부처·유관기관
15:25~15:30('05)	마무리 말씀	산업부 무역투자실장 해수부 해운물류국장